

건강! 예방이 우선입니다.

간염에 대하여

● 바이러스성 간염이란 무엇인가?

간에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염증.

일반적으로

- 만성간염은 급성간염이 순조롭게 낫지 않은 상태로 된 것.
- 만성간염은 바이러스성 간염, 알콜성 간염, 약제성 간염이 있고
- 바이러스성 급성간염은 주로 A형, B형, C형으로 나뉘어진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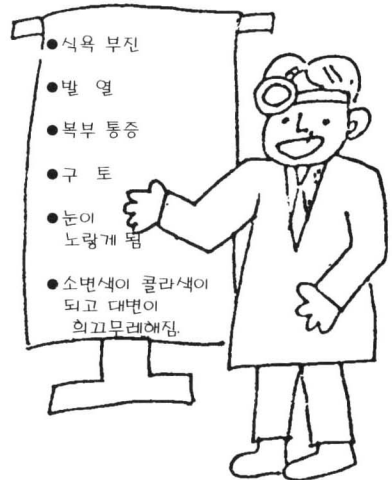
● 종류 및 감염경로

- A형간염 : 환자의 배설물을 통해 식수, 음식물 등에 균이 묻어 있다가 타인의 입으로 들어간다.
99%가 자연적으로 치료된다.
- B형간염 : B형간염 환자나 보균자의 혈액, 눈물, 침, 정액 등으로 통해 감염된다.
80%가량 치료가 잘되고, 10-20%는 만성화 그리고 간경화, 간암이 될 수 있다.
- C형간염 : 주로 수혈 받은 후 감염된다.
50%가량에서 만성화 된다.

● 증상

- 식욕부진이 온다
- 때때로 우상복부에 통증이 있다.
- 구토를 한다.
- 발열이 있다.
- 며칠 후에 눈이 노랗게 된다.
- 소변이 콜라 색깔이 되고 대변이 희끄무레 해진다.
- 나타나는 증상에 개인차가 없다.

증상



● 치료법

- 적절한 영양과 최대한의 침상 안정으로 간세포의 회복을 돕는다.
- 술이나 성분을 알 수 없는 약제, 한약 그리고 어떤 약물이든 오용, 남용을 피한다. 이는 오히려 간에 부담을 줄 뿐이다.

□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하여 월 1-2회 검사를 받고 경과를 살핀다.

예방방법

● 주요 증상

■ 예방방법

- 오염된 음료수와 음식물을 통해 사람의 대변으로부터 입으로 전염된다. 그러므로 환자의 대변을 땅에 묻거나 쓰레기를 태운다.
- 식사 전, 외출 후, 귀가시 비눗물로 손씻는 습관을 가진다.
- 칫솔, 면도기 등을 따로 사용한다.
- 규칙적인 생활을 하도록 한다.
- 목욕, 옷, 머리, 내의를 깨끗이 유지한다.
- 음료수와 음식물을 끓여서 먹도록 한다.
- 식기류를 자주 소독하여 사용한다.
- 술잔이나 물컵을 돌려 마시지 않는다.
- 수혈을 가능하면 피하도록 한다.
- 간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약의 사용은 의사의 지시를 따른다.



■ 반드시 B형간염 예방접종을 해야하는 사람

- 의료종사자와 가족.
- 가족중에 간염자나 보균자가 있을 때.
- 대인관계가 잦거나 단체 생활자.
- 보균자인 임부에게서 태어난 신생아.

■ B형 간염 환자 및 보균자 수칙

- 헌혈금지
- 혈액, 침, 정액, 땀, 젖 등 인체의 모든 분비물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간염을 전파시킬 수 있으므로 철저하게 개인위생을 지킨다. 주사기, 면도기, 칫솔, 손톱깎기, 수저 등 구별해서 사용하도록 한다.
- 상처나면 오염에 유의한다.
- 채혈, 주사, 문신할 때는 간염에 감염상태임을 밝힐 것.
- 급성간염시엔 가족 모두 간염검사를 실시하고 성관계는 삼간다.

■ 진단방법

혈청검사로 진단 : GOT/GPT상승, 간염항원 양성.
 B형간염 항원 양성일 때 : 간기능에 이상있으면 간염, 간기능이 정상이면 보균자이므로 만성간염될 가능성이 높다.

첫째 : 수명감염의 예방



둘째 : 수직감염의 예방

